



김세영



이정은

# US여자오픈 골프 우승 후보 1순위 김세영

### 2순위 박인비...내일 개막 앞두고 외국 베팅업체들 전망 이정은 디펜딩 챔프로 올 LPGA 첫 대회...“긴장+기대”

11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개막하는 제75회 US여자오픈 골프 대회를 앞두고 외국 주요 베팅 업체들은 김세영(27)을 '우승 후보 1순위'로 꼽는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 베팅 업체 윌리엄 힐은 9일 오전까지 김세영의 우승 배당률을 10/1로 책정해 우승 가능성이 가장 큰 선수로 주목하고 있다. 김세영의 뒤를 이어 박인비(32)가 11/1, 대니얼 강(미국)이 12/1 순이다. 또 다른 베팅 업체인 포인트벳 슈퍼북에서도 김

세영의 배당률이 9/1이고 박인비 11/1, 대니얼 강 12/1로 이어진다.

세계 랭킹 2위 김세영은 올해 메이저 대회인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을 제패했고, 11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펠리컨 챔피언십에서도 우승하는 등 최근 상승세가 돋보인다.

올해 2월 LPGA 투어 호주오픈에서 정상에 올라 투어 통산 20승을 채운 박인비는 7일 끝난 LPGA 투어 볼런티어스 오브 아메리카(VOA)

클래식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시즌 LPGA 투어에서 상금 1위는 박인비, 올해의 선수 부문은 김세영이 1위를 달리는 등 좋은 흐름을 타고 있어 외국 베팅 업체들은 이 두 선수가 우승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윌리엄 힐은 이들에 이어 최혜진(21)과 브룩 헨더슨(캐나다)을 16/1, 세계 랭킹 1위 고진영(25)을 18/1의 배당률에 놓고 있다.

포인트벳 슈퍼북은 헨더슨이 16/1, 최혜진과 고진영은 나란히 18/1로 책정했다.

고진영은 현재 세계 1위지만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11월에야 LPGA 투어 대회 출전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김세영, 박인비 등에 비해 이번 대회 우승 가능성에서 낮은 점수

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진영은 11월 LPGA 투어 북귀전으로 치른 펠리컨 챔피언십에서 공동 34위에 올랐고, 두 번째 대회였던 VOA 클래식에서는 단독 5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리며 이번 US여자오픈 전망을 밝게 했다.

한편 지난해 US여자오픈 우승자인 이정은(24)은 생애 첫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

이정은은 9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챔피언스 골프 클럽의 사이프러스 크릭 코스와 잭래빗 코스에서 열리는 US여자오픈 출전을 앞두고 "처음으로 디펜딩 챔피언으로 LPGA 대회에 임해서 긴장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김호두 한진산업 대표이사 전남롤러연맹 회장에 재선

김호두(사진) ㈜동방 레미콘, ㈜동부레미콘, ㈜현대레미콘과 ㈜한진산업 대표이사가 전남롤러연맹 통합 2대 회장에 재선됐다.



전남롤러연맹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단일 후보로 등록된 김호두 회장에 대한 제25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체육에 대한 열정과 리더십으로 전남롤러연맹 회장을 맡아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함께 공존, 발전하는 연계육성 시스템을 구축, 전남롤러 발전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롤러는 2015년 소년체전에서 금1, 은1개에 그쳤으나, 2016년 소년체전에서는 금4, 은1개를 수확, 전남 학교체육 효자종목으로 자리매김했다.

김 회장은 우수 영재 육성을 통한 탄탄한 학교체육을 기반으로 연계 육성시스템을 구축,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전남롤러의 위상을 높였다.

김 회장은 "우수 선수 발굴에 소홀하지 않고, 실업팀(여수시청) 지원을 늘려 전국 대회에서 전남롤러의 위상을 더욱 끌어올리겠다"며 "나아가 전국규모 대회를 전남에 유치, 롤러 저변확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호주오픈 챔피언 소피아 케닌 여자프로테니스 올해의 선수



올해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여자 단식 정상에 오른 소피아 케닌(22·미국·사진)이 2020년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다.

WTA 투어는 9일(한국시간) "전 세계 언론 매체들의 투표 결과 케닌이 올해의 선수 영예를 안았다"고 발표했다.

현재 세계 랭킹 4위인 케닌은 올해 첫 메이저 대회로 열린 호주오픈 정상에 올랐고 프랑스오픈에서도 준우승했다.

케닌은 또 US오픈에서도 16강까지 진출하는 등 올해 열린 세 차례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16강 이상의 성적을 냈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월별던이 취소된 가운데 세 차례 메이저 대회 여자 단식에서 모두 16강 이상을 기록한 선수는 케닌 외에 페트라 코비토바(8위·체코)가 유일하다. 그러나 코비토바는 프랑스오픈 4강, 호주오픈 8강, US오픈 16강 등 결승에는 한 번도 오르지 못했다.

WTA 투어 올해의 선수는 세리나 윌리엄스(11위·미국)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연패를 달성했고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안젤리크 케르버(25위·독일), 가르비네 무구루사(15위·스페인), 시모나 할레프(2위·루마니아), 애슐리 바티(1위·호주)가 차례로 수상했다.

기량 발전상은 올해 프랑스오픈 우승자가 시비 옹테크(17위·폴란드)가 받았고, 올해의 컴백상은 빅토리아 아자리안(13위·벨라루스)에게 돌아갔다. 신인상은 프랑스오픈 4강까지 올랐던 나디아 포도로스카(47위·아르헨티나)가 차지했다. /연합뉴스

## 최혜진-헨더슨, 임희정-톰프슨 한조

### KLPGA투어 간판선수들, 외국 톱랭커들과 동반 라운드

최혜진(21)과 임희정(20) 등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간판선수들이 제75회 US여자오픈 골프 대회에서 외국 톱랭커들과 동반 라운드를 벌인다.

11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챔피언스 골프클럽에서 개막하는 이번 대회 1, 2라운

드 조 편성을 보면 KLPGA 투어에서 3년 연속 대상을 받은 최혜진은 브룩 헨더슨(캐나다), 리셋 살라스(미국)와 한 조가 됐다.

또 임희정은 렉시 톰프슨, 넬리 코르다(이상 미국)와 한 조로 1, 2라운드를 치른다.

최혜진은 2017년 이 대회에 아마추어 자격으로

출전해 준우승한 경력이 있지만 현재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비회원 신분이고, 임희정 역시 미국 무대에서는 이렇다 할 성적 올린 적이 없다.

그러나 현재 임희정이 세계 랭킹 22위, 최혜진은 24위에 각각 올라 있어 LPGA 투어에서도 정상급 선수들과 '샷 대결'을 벌이게 됐다.

배선우(26)도 스테이시 루이스(미국), 해나 그린(호주)과 같은 조로 묶였다.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 이정은(24)은 시부노 히나코(일본), 가브리엘라 러플스(호주)와 함께 1, 2라운드를 치르고 세계 랭킹 1위 고진영(25)은

대니얼 강(미국), 안나 노르드크비스트(스웨덴)과 동반 라운드를 한다.

또 김세영(27)은 리디아 고(뉴질랜드), 브리트니 울터마레이(미국)와 같은 조가 됐다.

박인비(32)는 유소연(30), 에리아 쭈타누간(태국) 등 친숙한 얼굴들과 만났고, 박성현(27)은 이미림(30), 오스틴언스트(미국)와 같은 조로 경기한다.

이번 대회는 1, 2라운드를 사이프러스 크릭 코스(파71·6731야드)와 잭래빗 코스(파71·6558야드)에서 나눠 치르고 3라운드부터 사이프러스 크릭 코스에서 경기한다. /연합뉴스

## 광주시 “광주FC 강도 높은 혁신·쇄신” 약속

### 다음주 재창단 수준 혁신안 발표 “대표·단장·감독도 조속 선임”

광주시가 최근 임직원 회령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시민프로축구단 광주FC를 쇄신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시는 9일 대변인 명의의 담화문을 내고 "광주FC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단인 만큼 강도 높은 혁신과 쇄신을 통해 시민구단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서 "선수들의 의견 수렴, 전문가들의 폭넓은 조언 등을 경청해 다음 주 중에 재창단 수준의 혁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표, 단장, 감독도 역량을 갖춘 분들

로 조속히 선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광주FC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감독과 선수단이 똘똘 뭉쳐 지난해 1부 리그 승격과 더불어 올 시즌에는 창단 이래 최고의 성적인 6위의 성과를 거두 시민들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안겨줬다"면서 "하지만 조직 내부의 갈등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일부 원칙과 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추진

이 문제가 되면서 구단 운영과 관련해 문제점들이 제기돼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부당한 사항은 엄정마속의 심정으로 수사 의뢰했다"며 "이러한 사태가 빚어지게 된 점에 대해서 구단주로서 송구스럽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앞서 광주시는 광주FC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기영웅 전 단장과 임직원 2명의 회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최권필 기자 cki@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아웃사춘
2관	도굴
3관	스웨그, 잔칫날, 레벨 16
4관	아웃사춘
5관	런
6관	조제
9관	조제
7관	미드나이트 스카이, 스카이와 친구들, 로보시터의 비밀
8관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더 프롬, 프리키 데스데이 순한맛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시간 속의 도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작가지원 공모전시

시간 속의 도시

2020. 12. 3.(목) ~ 27.(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잠자는 숲 속의 미녀**

광주시립발레단 제127회 정기공연

잠자는 숲 속의 미녀

2020.12.18.(금) ~ 2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GAC기획공연 -포시즌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2020. 12. 30 (수)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